
휴의 나라 라 오 스 2014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라오스(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엥)
2014. 11. 9. ~ 11. 14.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국: 라오스(LAOS PDR)

2. 여행목적

- 전통과 자연생태를 슬기롭게 보전하고 있는 라오스의 비교 시찰
- 시장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 라오스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이해와 전문 확대

3. 여행기간: 2014. 11. 9.(일) ~ 11. 14.(금) 4박 6일

4. 여행자 인적사항: 9명(의원 6명, 의회 직원 3명)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1	단양군의회	부의장	조 선 희	
2	단양군의회	의 원	김 광 직	
3	단양군의회	의 원	오 영 탁	
4	단양군의회	의 원	김 영 주	
5	단양군의회	의 원	천 동 춘	
6	단양군의회	의 원	이 명 자	
7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 기 영	
8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 기 남	
9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 명 환	

목 차

I. 연수의 배경	4
1. 연수목적	4
2. 연수기간	4
3. 연수지역	4
4. 연수일정	5
II. 연수국가 현황	6
1. 라오스	6
2. 방문도시	8
• 비엔티안	8
• 루앙프라방	9
• 방비엥	10
III. 중점관찰	11
1. 자연그대로의 힐링 도시	11
2. 이색적인 몽족 야시장	15
3.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19
IV. 라오스에 대한 단상	22
V. 연수후기	37
참고	38
1.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38
2. 몽족 학교 방문	39

I. 연수의 배경

연수기간

- 2014. 11. 9.(일) ~ 11. 14.(금) 4박 6일

연수지역

- 동남아시아 라오스: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엥

연수목적

- 전통과 자연생태를 슬기롭게 보전하면서 느림의 미학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비교 시찰을 통하여 우리군의 슬로시티(Slowcity) 관광 상품 개발 방안 강구.
- 우리나라 70년대 시장 풍경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과거와 현재 시장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 방문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현장 체험을 통한 이해와 견문을 넓히는 계기 마련(동굴지구, 학교 등)



<알찬 연수를 위한 사전 회의>

연수일정

구분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4박 6일)
1일차	2014.11.09.(일)	단양→인천공항 인천→비엔티안	이동
2일차	2014.11.10.(월)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 세계문화유산 지정 도시 견학 (왕궁박물관, 왓마이, 왓씨엥통) · 몽족야시장 비교 견학
3일차	2014.11.11.(화)	루앙프라방 →방비엥	· 루앙프라방 아침 재래시장 견학 및 새벽 탁발공양 문화체험 · 소수민족 마을 및 현지학교 방문
4일차	2014.11.12.(수)	방비엥	· 몬도가네 시장 비교 견학 · 카르스트지형 동굴 비교견학 (탐낭동굴, 탐쌍동굴)
5일차	2014.11.13.(목)	방비엥→비엔티안 비엔티안→인천	· 젓갈마을 방문 · 라오스대사관 방문 · 달랏사오 시장 비교 견학
6일차	2014.11.14.(금)	인천공항	이동

II. 연수국가 현황

라오스(LAOS PDR)

수 도	비엔티안(Vientiane)	1인 당 GDP	1,697달러(2014) 세계141위
면 적	236,800km ² (세계 84위)	언 어	라오스어
인 구	690만여명(2014) 세계 100위	민 족	라오툼족 68%, 라오통족 22%,호몽족
정 치 체 제	사회주의공화제	종 교	불교 95%, 가톨릭,개신교
대 외 정 책	비동맹 중립	기 후	열대몬순성 기후

- (지리)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미얀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1배이다. 동남아의 젖줄인 메콩강 4,200km 중 1,898km가 라오스를 관류하고 있다.
- (역사) 1893년부터 프랑스 통치를 받다가, 1945년 4월 일본의 도움으로 프랑스를 물리쳤으나, 곧 이은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이 끝난 후인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에 따라 라오스는 독립을 획득했다.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익과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좌익이 대립하면서 다시 내전이 시작되었고, 1975년 8월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했다.
- (주변국)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와 사회주의 공동이념이 유사한 베트남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최대 교역국 태국 및 주요 투자국 중국과의 관계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 (소수민족) 1950년대 라오스 왕실 정부는 라오스 내의 민족들을 라오룸, 라오팅, 라오송의 세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분류 방식은 2002년에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으나, 공공연한 소수민족(몽족¹⁾ 등) 차별은 여전하다.
- (경제개방) 사회주의 국가로 라오인민혁명당의 1당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과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라오스의 경제는 매우 악화되었으나, 1986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개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 (자원) 구리, 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광물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물 수출, 수력발전전력의 태국 수출, 관광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 (국제사회)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13년 2월, WTO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기 및 지도)



1) 몽족: 라오스 소수민족으로서 베트남 전쟁기간 중 라오스 정부의 공산화에 반대하여 미군과 동맹을 맺었으나 미국이 패전하고 1975년 라오스 정권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자 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탈출해 집단 거주해 왔으나 2009년 태국 거주 몽족의 과반수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어 인권문제, 차별 등이 문제되고 있다.

비엔티안(Vientiane)

- (면적) 3,920km² ○ (인구) 약 80만명
- (주요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 (수도) 라오스의 수도로 행정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태국 농카이 지역과 접경하고 있으며 우정의 다리를 건너 태국과 왕래가 가능하다.
(시내중심에서 국경까지 차로 30분 거리)
- (원래 이름) 비엔티안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위앙짠’ 으로 ‘달이 걸린 곳’ 이라는 뜻이다.
- (고도제한) 라오스의 상징인 불교사원 탯 루앙의 높이를 기준으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히 고도제한을 푼 호텔 건물이 있었다.
-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수도 중심부 메콩강 제방 총연장 12.3km와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한 강변공원 14.5ha, 강변도로 3.0km 건설로 라오스 유사 이래 최대공사이며, 한국 업체들이 전 공정을 수행해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의회)

- 라오인민혁명당이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 국가이다.
- 회기 중이라 의회 내부를 볼 수는 없었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 (면적) 16,875km² ○ (인구) 약 47만명
- (주요산업) 관광산업, 서비스업
- (옛 수도) 라오스 최초의 통일 왕국 란상(Lan Xang) 왕조의 수도이며, 도시 곳곳에 30개도 넘는 불교사원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식 건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 1995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도(古都)이며, 그 어떤 개발도 고도의 제한아래 불가능한 지역이다.
- (여행자들의 천국) 빼어난 자연환경과 훌륭한 문화유산 외에도 여행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독특한 수공예품들, 스님들의 탁발 공양, 싸고 맛있고 다양한 먹거리로 여행자들을 위한 천국으로 불리는 유명한 관광 도시이다.
- (야시장) 푸시산 아래 불교 사원 옆에 마련된 야시장은 몽족 자수품이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구비되어 있어 기념품 구매뿐 아니라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현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탁발 공양 체험)



- 매일 새벽 60여개 사원에서 주황색 가사를 걸친 수백여 명의 스님들이 거리로 나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준비한 밥과 과자 등을 받는다.
- 스님들은 맨발로 줄을 맞춰 마을을 돌며 하루 먹을거리를 공양 받고,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는 것을 취한다.

방비엥(Vang Vieng)

- (거점지역)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몇 년 전만 해도 비엔티안 인근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루앙프라방을 잇는 거점 지역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 (체험 관광) 계곡을 흐르는 강과 곳곳에 위치한 동굴들이 많아 동굴 탐험, 트래킹, 카약킹, 튜빙, 쥘라인, 기구 등 레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 (석회암 지대) 석회암 지형으로 특유의 기묘한 봉과 직벽들이 많은데, 석회암 동굴만 무려 2,5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탐사되지 않은 동굴이 더 많아 자원의 활용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부하다.
- (작은 장가계) 쑥강을 끼고 우림과 카르스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으로 중국의 계림을 연상한다고 하여 작은 계림으로 불리고 있다.



<작은 장가계로 불리는 방비엥의 풍경>

III. 중점관찰

자연그대로의 힐링 도시

흙의 나라 라오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위, 4,900여km의 메콩강 줄기 중 1,898km를 접해있는 곳, 이국적인 푸르른 산과 순박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 라오스를 지칭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과 착한 사람들이다.

한걸음 발을 디디면 시간의 흐름을 잊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한 나라, 배낭 여행객들의 천국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로의 여행

우리는 라오스의 현재 생활상이 우리의 60년대 인지 70년대 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수도나 지방 도시의 낙후된 모습을 보면 우리의 60년대 같아 보이지만, 자동차와 자전거 각종 문명의 이기(휴대폰, TV 등)를 보면 80년대를 훌쩍 넘겨 보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현지 라오스 대사도 잘 모르겠다는 걸 며칠 돌아본 우리가 선불리 알 수는 없었으리라. 분명한 건 이곳이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떠올리게 하는 타임머신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연수팀은 여행 내내 각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보기 힘든 먼지 폴폴 날리는 신작로와 콧물 질질 흘리며 지칠 줄 모르고 노는 아이들,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힘겹게 귀가하는 학생들, 풀 내음 솔솔 풍기는 논둑

길, 열기설기 이어 만들어 걸을 때마다 불안한 소리를 내던 나무 다리, 아이스끼끼를 외칠 것만 같은 자전거 아이스크림 장수, 이 모든 과거의 추억거리들이 라오스에서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수중동굴 체험하러 가는 길>



<곳곳에 있는 나무 다리>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라오스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하다. 도심 곳곳에는 신도시와 쇼핑센터, 호텔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관광지로 불리는 도시와 수도 비엔티안에는 이미 관광객들이 몰고 온 무분별한 외래문화와 현대문명의 달콤함에 빠져 들고 있었으며, 우리가 이미 겪기 시작했던 천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으로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라오스 사람들도 문명의 혜택을 받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솔직히 좀 아쉬웠다.

라오스 대사의 충고

라오스대사관을 방문하여 김수권대사님과 라오스 상황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높은 식견과 라오스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던 대사님은 라오스 당국에 지금의 라오스를 지키고 보존하라는 말씀

을 자주 하신다고 했다. 개발도상국과 서구에서 겪고 있는 발전 폐해를 라오스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라오스는 지금 이대로가 자원이고 힘이라고 누누이 얘기한다고 했다.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시도하는 변화, 그 개발 과정에서 당장은 얻는 게 많아 보이지만 결국 얻는 것 그 이상으로 잃는 것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별써 비엔티안 등 대도시에서는 시장경제체제가 가져온 삶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떠밀려 밑바닥 삶을 전전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단양의 경쟁력, 무엇이 힐링인가

우리 단양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편안한 휴식을 모토로 하는 도시브랜드로 녹색섬포 단양을 표방하고 있다.

힐링과 슬로시티(slowcity)의 추세에 발맞춘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만, 단양을 방문한 관광객이 닿는 거의 모든 길이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움을 찾기 힘들다. 비포장길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기세로 지금도 포장할 흙길들을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라오스가 대규모 레저시설을 갖추고 깔끔하게 정리된 고속도로, 관광시설을 갖추었다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힐 수 있었을까?

근래에 화두인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문화’인 에코투어리즘(eco tourism)에 비추어 보면, 단양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단양팔경, 고수동굴을 위시한 기존 관광 자원을 편리하게 구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지, 자연스러움

을 인공으로 덧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연그대로가 경쟁력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단양의 주요 관광 테마는 자연이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시설 확충으로 인공미를 가미하는 것 또한, 여행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단양팔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이어야지, 주연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에 둘러싸여 흙 한번 밟을 기회조차 없는 도시민들과 자연과 하나가 되어 호흡하고 온몸으로 느끼기 위한 사람들에게, 단양의 자연이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투박함과 순수함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광자원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명의 편안함을 흠뻑 만끽한 도시인들이, 먼지 폴폴 날리는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곳을 그리워하고 머물고 싶어, 라오스를 여행지로 선택하고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색적인 몽족 야시장

라오스의 최대 야시장

도시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라오스 제2의 도시 루앙프라방 푸시산 아래는, 저녁 6시만 되면 가지런히 이어놓은 울긋불긋 천막에 불빛이 하나둘씩 켜진다.

그 혼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는 커녕 우리의 남대문시장 같은 재래 시장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곳에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기웃거리는 야시장이 있다.

과거로 돌아간 듯 고풍스런 도시가 천막의 불빛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이 색다른 풍경에 홀려 아기자기한 제품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색다른 여행 콘텐츠

루앙프라방 야시장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소수민족인 몽족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패브릭 소품 등이 주류를 이룬 이곳의 제품은 정말 물건이 많기도 하거니와 구입할 때

흥정하는 재미도 컸다. 너무 깎다 보니 판매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얼마나 깎느냐도 후일담으로 회자될 만큼 재미가 쏠쏠했다.

수도 비엔티안의 야시장보다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에 더 매료되고 열광하는 이유를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관광객들은 잘 갖춰진 시스템과 세련된 기존 제품보다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물건을 직접 만든 원주민이 수줍게 앉아 거래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듯 했다. 구매에 열을 올린 이방인들은 주변의 식당이나 술집을 거쳐,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들었다는 툭툭이를 타고 그들의 숙소로 향하는데, 이 야시장 하나 때문에 식당은 사람들로 붐비고, 이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툭툭이는 그 숫자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이렇듯 이 야시장은 루앙프라방의 지역 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다.

단양의 현실

우리 연수단은 이 야시장의 풍경 또한 단양에 그대로 옮기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전통미가 가득한 이색적인 상품들, 불교사원과 어우러진 묘한 이국적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성이는 관광객들 또한 부러웠다. 그러나 우리의 야시장은 어떤가.

매년 큰 축제의 구성에는 먹거리 마당과 야시장이 있어왔다. 하지만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가 라오스에서 느꼈던 색다른 품격은 떠오르지 않는다. 값싸고 조잡한 제품들로 가득 찬 급조한 야시장에서 단양 군만의 특색은 찾아보기 힘들고, 축제의 품격마저 떨어뜨리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Made in 단양

이렇게 단양군에서 열리는 축제에 전국에 야시장만 쫓아 다니는 듯한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다. 천원마트, 각종 싸구려 과자, 국적 불명의 저급한 상품들, 위험천만 놀이기구...

단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들과 단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양군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바가지 요금과 불법 영업, 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축제가 끝나고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전국의 똑같은 난전 풍경>

자, 라오스의 몽족 야시장과 이런 난전을 접목해 보는 건 어떨까?

단양 군민들이 그들 나름의 분야에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만든 짬궁에 등을, 농민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기존 상인들은 떨이상품 코너,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물, 군민들의 물물교환 벼룩시장, 각종 부녀회에서 만들어 파는 먹거리 등 기존에는 한 켠에 구색으로만 갖추어 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사람과 상품 모두 단양 산(産)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체계적인 준비와 계층 및 세대 간 상생의 공감대 형성으로

단양만의 색(色)을 찾아야 한다.

말초적인 입맛과 순간 재미로 가득한 공허한 기존의 야시장보다는
우리의 상인과 농민·주민이 내 놓은 상품들로 꾸며지는 게 단양의
진정한 야시장이 아닐까?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라오스의 수자원

라오스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양축이 관광업과 수력 발전이라고 할 정도로 수력은 라오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라오스의 전체 국토를 관류하고 있는 메콩강의 유수량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15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을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로 수출하고 있다.

이미 태국과 베트남은 라오스의 수력발전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더니, 개발조건으로 라오스를 착취하고 있는 듯하여 한편 씁쓸하기도 했다.

수력발전사업은 환경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유한한 원유나 지하자원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성격을 가진 수력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열강들의 자원 선점이 이해되기도하고 부럽기도 하다.

쏟강을 활용한 체험관광 상품

이렇게 수량(水量)이 풍부한 라오스의 수자원은 수력발전 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갔던 방비엥 땡강은 흥미진진함으로 가득했다.



단순히 물과 산의 조화로운 풍경 감상만이 아니라, 강물에 뛰어 들고 싶을 만큼 관광객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우리가 바라본 송강에는 두세 명이 카약을 타고 노를 젓고, 음료수를 한 손에 들고 햇빛을 온 몸으로 받으며 튜브에 몸을 싣고 강줄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며, 어르신들은 모터 보트를 즐기고, 놀랍게도 강변 가에는 기구(氣球)도 둥실 떠오르고 있었다.

당장 내려가서 우리도 체험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또 석회암 수중동굴을 활용하여 튜브를 타고 줄을 잡아 이동하며 탐험하게 만들어 놓았다. 30여분의 짧은 시간에 물로 가득 찬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일 뿐인데, 주요한 관광 상품이 됐다고 한다. 심지어 식사도 이동하는 배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즐기게 만들어 놓았다. 참 인상적이었다.



<노를 젓는 카약킹>



<송강에서의 튜빙>

단양의 남한강 활용

단양을 가로지르는 남한강의 수위가 높아져, 산과 강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면,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냇을 잃고, 단양에 사는 우리도 감탄에 마지않는 산자수려한 풍경이 연출된다.

단양은 역시 남한강 수량이 풍부할 때 제 맛이다. 패러글라이딩이 꼭 손님을 태우지 않고도 유인 목적으로 하늘을 수놓을 때도 있는

것처럼, 강에 카약이나 조정이 떠다니고, 각종 수상 스포츠들이 펼쳐지고 있다면 단양의 자연 품격은 더 없이 올라갈 것이다.

남한강의 수위가 홍수, 농·용수 공급, 발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되고 인력으로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충주댐 건설로 인해 우리 군민이 고통 받은 역사를 생각한다면, 호반관광도시 건설로 보답 받아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인구 3만을 간신히 넘긴 단양군이 앞으로도 영구히 단양팔경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관광뿐이고, 그 중심에 남한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량(水量)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라오스에 대한 단상

흙, 흙, 흙 그리고 황토색 강물

TV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며 가장 궁금했던 것이 메콩강의 강물은 왜 누런 황토빛일까였다. 루앙프라방에서 방비엥으로 오는 길에 두 번이나 길이 무너져 차량 행렬과 함께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 때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현장을 보면서 산이 그냥 흙더미란 사실을 알았다.

얼마나 빛깔이 좋은지 정말 먹고 싶고, 밭로 하루 종일 밟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니 그 흙의 색깔을 머금고 흘러내리는 강물은 당연히 황토색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노년기 지형이라 흙의 평균 깊이가 1m 정도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라오스는 국토가 정말이지 흙 자체였다. 그 좋은 흙을 단양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시멘트 공장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행 내내 떨칠 수가 없었다. 특히나 점토가 부족해서 온갖 쓰레기 폐기



물을 들여다 원료나 부 원료라고 쓰고 있는 단양의 현실을 생각하면, 라오스의 빛깔 좋은 흙은 보석같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루앙프라방에서 방비엥으로 오는 8시간이 넘는 버스 여정에서, 마음에 걸리는 편치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을 목도했다.

아열대기후라 숲과 정글이 펼쳐있는 우거진 산림을 기대했던 우리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산이 황폐된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어 찹쌀이나 바나나를 심거나, 고무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그 산속들이 평야지대에 내려와도 농사지을 충분한 땅을

국가가 제공할 수도 있지만, 산족의 사람들은 평야에 내려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정부가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시킬 정책은 펴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대사관 측의 설명이었다.

말 그대로 소수민족도 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라오스는 천혜의 정글과 무성한 산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단양도 웰빙을 넘어 힐링의 시대에 여전히 석회석과 시멘트 채광과 그리고 산업폐기물 처리로 악취와 먼지가 일상으로 되어버려, 주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이 때,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연구하고 행동을 위한 계획을 차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행 내내 기억의 저 편에 웅크리고 있었다.

라오스국립박물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예술과 생활상을 모두 엿볼 수 있는 곳이 국립박물관이 아닐까? 라오스에 대해 무지한 우리로서는 라오스 국립박물관에 간다는 기대와 설렘에 조금은 들떠 있었는데, 안내원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한 곳은 퇴색된 프랑스식 낡은 건물이었다.

국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건물외장의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곳도 살짝 보이고, 페인트의 색깔도 바랜 곳이 많았다.

라오스인들은 우리가 60~70년 말까지 그랬던 것처럼,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하지, 국립박물관에 투자할 여력은 없는 것 같았다.

하긴 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은 사치에 불과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국립박물관 초입에 걸려있는 대형 라오스의 지도를 보며, 안내원이 친절하게 이런 저런 식민 지배 역사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설명을 했다. 라오스는 1353년 파굼궁이 란상왕국(Lan Xang)에서 시작해서,

1893년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다가, 1949년 7월 19일에 독립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라오스란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더욱이 라오스의 역사는 잘 알지 못했는데, 라오스가 북베트남과 함께 독립전쟁을 위한 무장투쟁을 했다는 사실에 참으로 놀라웠다.

이렇게 문맹률이 높고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그 긴 기간을 싸워 나갈 수 있었을까? 국립박물관은 사실 규모로 보나, 전시 유물로 보면, 참으로 보잘 것 없을지도 모른다.

내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곳은 라오스의 무장독립투쟁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2층의 몇 구획의 전시실이었는데 M60, M16, M50, M203, 박격포 따발총이라고 우리가 배운 소련제 PPSH-41 기관단총, 곱폭탄, 크레모아, 박격포 등과 종류를 알 수 없는 미제 무기들이 많이 있었다. 아마도 전쟁 중에 노획된 것을 진열한 것이 아닐지 추측해 보았다. 안내원이 미군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폭격을 많이 맞은 나라가 어딘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내심 베트남이 아닐까 생각했다.

베트남은 1960~1975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했고, 미국은 존슨 대통령 시절인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어뢰정 3척이 미구축함 매독스 호를 선제공격 하였다는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8월 7일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여(그 이전부터 전쟁에 개입 중 이어서 북베트남에 대한 전면 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 1995년 로버트 맥나마라 베트남 전쟁 당시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조작 인정)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려 1백만 톤의 폭탄을 베트남에 퍼 부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오스가 미국의 폭격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안내원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 게릴라 베트콩들에게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라오스 내륙에 건설된 호치민 루트를 파괴하기 위해, 미국은 1-2차 세계대전에서 쏟아 부은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을 라오스 땅에 퍼 부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알기는 어려웠다.

다만 미국이 베트남 전의 승리를 위해 베트콩에게 지원되는 보급 물자 차단을 위한, 호치민 루트 파괴를 위해 얼마나 총력을 기울였는지 이해할 단서가 되는 것 같았다.

넓고 허름한 국립박물관에서 듣는 라오스의 비극은 우리의 분단과 겹치면서 마음이 아렸다. 그래도 라오스인들은 당당하게 그 넓은 건물에 자신들이 쟁취한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을 자랑스럽게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독립 운동가들이 탈출해서 중국, 러시아로 나가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하였지만, 독립을 우리 손으로 이루지 못해서, 승전자의



지위로 전후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략전쟁의 전범국가도 아닌데 전쟁범죄자인 일본을 대신하여 두 개의 나라로 강제로 찢어졌으니, 오천 년 민족 역사의 한이 아닐 수 없다.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라오국립박물관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떠올렸고,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분단을 넘어, 통일된 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와 소통하면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기회를 갖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전쟁의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롭게 성장하려고 하는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대한민국과 좋은 선린 우호관계로 양국의 공동번영을 기원해 본다.

탐낭동굴

탐낭동굴 체험을 통해, 우리는 단양의 고수동굴이나 천동동굴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굴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천혜의 아름다운 동굴자원을 제대로 보존,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고수동굴과 천동동굴에 조명과 철재계단을 설치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 왔지만, 관람방식을 탐험이나 모험 느낌이 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지 상상해 본다.

우리가 고수동굴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철재계단도 없었고, 아주 어둡고 좁고 긴 인류 태초 원시의 자궁 같은 신비한, 조명도 없는 두렵고 암흑으로 쌓인, 작은 불빛에 의지한 채 물길에 젖고, 진흙계단에 미끄러지면서 경이와 두려움을 가지고 보았을 것이다.

또, 그 수억 년의 찬란한 물빛을 머금은 찬탄할만한 보석 같은 여러 형태의 종유석, 석주, 석순들, 논 형태의 석회석 계단들, 기기묘묘한 형태의 돌의 군상들, 두드리면 맑은 소리를 내던 갈기처럼 생긴 윤기 나던 부챗살 형태의 주름바위 등이 우리를 설레게 했을 것이다.

그런 태고의 신비와 기억을 간직한 고수동굴이기에 저가(低價)로 쉽게 돈을 버는 방식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이제라도 체험과 모험을 통해 동굴의 생성연대기를 보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동굴에 인공적인 시설을 최소로 하고, 일일 관람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급화하면 어떨까.

동굴 발견 당시 국민소득 수준의 관광방식은 단체관광객 위주의 저가 동굴관광이 옳았을 것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여행의 방식에서도 여러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제라도 단양지역의 동굴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간다면, 동굴관광 안내원도 배출하여 지역의 일자리도 늘이고, 안내원을 대동한 소규모 탐사 관광으로 지역의 체류시간을 늘린다면, 동굴의 훼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웰빙과 힐빙 그리고 힐링의 시대, 체험과 모험과 학습 여행의 시대에는 그런 저개발 방식으로 지역의 동굴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시 탐낭동굴로 돌아가서, 탐낭동굴은 튜브를 타고 아니 탄다는 표현보다는 튜브 위에 엉덩이에 걸치고, 튜브 위에 누워서, 밧줄을 당기면서 안내인의 주도에 따라, 동굴의 천정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 내리는 어둠속의 미로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한 줄로 이어진 밧줄에 안전과 고립의 위험을 의지한 채, 깊이 모를 미지의 물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동료이거나 우연히 내 옆에 있게 된 누군가가 길을 인도해 주리라는 믿음으로, 재미와 공포를 함께 나누고 연대감을 형성하며, 동굴이 생성되고 진화하고 있는, 마치 살아있는 고래의 거대한 내부를 여행하는 듯, 동굴의 속내를 작은 머리



등불(헤드랜턴)로 엿보는 긴장과 설렘이 있었다. 살아 있는 수중동굴을 팽팽하게 긴장한 근육의 힘줄과 미지를 대하는 깊은 마음속의 작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고요한 긴장으로 대면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동굴 여행의 진수가 아닌가?

탐낭동굴을 관람하는 즐거움과 스릴은,

조명으로 어둠의 신비를 몰아내고 철재계단으로 근육의 긴장을 없애며 많은 대중들의 숨길로 시커멓게 상처 난, 단양의 고수동굴이나 천동동굴은 비할 수가 없었다.

미지를 탐험하는 긴장과 스릴이 없어진 편리함은 모험의 시대, 체험의 시대, 극단스포츠의 시대, 힐링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손전등이나 횃불을 들었던 시대의 살아 숨 쉬던 고수동굴, 천동동굴로 돌아가자. 동굴탐험가들이나 젊은 스포츠인들이 하늘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날고, 강에서는 카약과 각종 수상레포츠가 있고, 산과 길 위에선 산악자전거 등산, 트레킹, 자전거를 타고, 동굴에선 원시의 탐험을 하게하자.

이것이 탐낭동굴의 아주 짧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느낀 단양의 재탄생 방향이다. 같은 석회석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방비엔의 산들은 우리보다 규모나 높이는 웅장했으나, 아기자기한 맛은 덜한 느낌을 받았다. 석회석 그대로의 산 절벽들은, 여기 저기 회칠이 벗겨진 담장처럼 단단하지 않은 푸석푸석한 느낌이었다.

이에 반해 단양의 도담삼봉과 사인암, 구담과 옥순의 절벽들은 장구한 세월의 질곡에서도 떡하니 버티고 선 단단함과 강직함이 서려 있지 않는가? 뭐랄까, 기개가 있고 단정하면서도 곳곳한, 저 우탁 선생이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지부상소를 올리던 그 장한 기개가 있다. 이렇듯 단양의 곳곳에는 보석 같은 자연환경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보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정말 이런 환경을 접해보지 않은 사막지대의 사람들, 해발고도 보다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대한 그랜드 캐년만 계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 천미터의 산들만 가진 사람들에게, 단양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발로 밟을 수 있으며 눈에 넣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

우리의 마케팅도 그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 이제 제대로 준비하고 환경을 살려서 세계 속으로 당당히 걸어가자.

대한민국 녹색윙표, 단양이여!

불교, 불상, 사원, 사원들

라오스는 불교의 나라라고 한다. 라오스의 불교는 소승불교이다.

소승불교는 인도에서 주로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 라오스, 스리랑카 등지로 전래 되어 성장하였으며, 사회와 무관하게 개인의 엄격한 정진을 통해 아라한 또는 나한의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시불교 이래 불교의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아소카왕 시기까지를 소승불교라 하는데, 라오스 비엔티안에는 참으로 많은 사원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원이 탕루알, 왓 팟깨우, 왓 씨사켓 등이다.

사원들은 대부분 화려한 금박도장이 되어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 가까이 가서 보면 불상이나 각기 다른 형태의 다양한 불(佛)들은 시멘트로 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신라 불상이나 조선의 불상들과 비교하면 투박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사찰에 들를 때마다



향과 꽃으로 기도하는 라오스인들을 볼 수 있었고, 전 국민의 90%가 불교신자라는 말이 허튼 말은 아닌 듯싶다.

그러나 수많은 사찰이 있음에도 사찰마다 사람들이 방문하는 까닭은 라오인의 삶 속에 불교는 종교를 넘어 생활이 되어 있었고, 가난하지만 선하고 낙천적인

라오인은 선지자, 선각자가 되는 꿈으로 인해 비우는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이에 반해 우리네 삶은 수많은 교회와 사찰이 전국에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늘 물질을 탐하고 천륜을 파괴하는 일들이 뉴스가 되어 매일 신문과 TV를 장식하니, 우리 선진 개도국의 국민들은 라오인의 비움과 느림에 대해 배워야 할 것 같다.

사원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천태종단의 본산인 구인사를 생각해 보았다. 200만에 가까운 신도를 가진 거대 사찰로 성장하여, 경향각지에 말사를 가진 종단이고, 특히나 경상도에서는 종단의 힘이 더욱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성장했고, 해외 선교에도 적극적인 한국불교의 큰 기둥이 되었다.

구인사를 방문하는 신도 외의 관광객 수도 많고, 구인사가 없으면 단양과 동서울 간을 직통하는 시외버스도 끊어지고, 부산·안산·안동 등으로 가는 버스도 필요 없게 된다고들 하는데, 단양군에서 구인사와 연계한 관광·복지·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구인사를 찾는 내·외국인을 위한 자료 제공과 구인사 종도들을 관광으로 유인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구인사 경내 관광을 위한 모노레일사업 추진, 단양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힐링 캠프 및 직업학교 체험, 불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종단과 단양군의 상생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타 종교단체에서 특정종교 편향이라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불교계에서 하는 힐링캠프인 템플 스테이에 대해서는 기독교계나 천주교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내안의 나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천태종 구인사와 함께 단양의 문화예술과 복지, 관광을 아우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나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탁발수행

탁발수행이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을 라오스에서 알았다. 탁발은 한국에서도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보았던 풍경이다.

라오스에서처럼 집단 탁발은 본 적이 없지만, 우리네 시골엔 스님(때로 스님이 아닌 분들도 있었던 것 같다)들이 발우를 들고 탁발을 다니는 것을 보곤 했고, 어린 시절 바가지에 쌀이며 반찬을 드린 기억이 난다. 라오스에서의 탁발은 아주 큰 행사처럼 보였다.

제일 오래된 스님이 제일 앞에 서고, 출가를 한 순서에 따라 열을 지어 사원 단위로 나오는데, 관광객이나 신도가 드린 쌀, 반찬,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아서 주고 가는 모습이 참 이채로웠다.

스님들이 공양을 받는 순간 다시 이 음식과 돈 등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가난한 라오스는 그렇게 상호 부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돕는 방식으로든 멋진 것이다.

야시장

푸씨시 사원을 내려오면 몽족이 여는 야시장이 있다.

야시장에는 주로 손으로 직접 만든 전통 의상이나 장신구, 잡화류가 많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제법 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호텔 직원은 무조건 30%정도 깎은 가격으로 사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오랜만에 가격을 흥정해 보는 재미를 가졌는데, 어찌 보면 물건 값을

협상하는 행위조차 재미로 치부하는, 실제로 이것은 몽족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았는데, 우리가 참 그들보다 경제력이 낫다고 너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우리일행 중 몇이 뜻을 합하여 많은 양의 동일한 옷가지를 한꺼번에 구입할 때, 옷을 파는 젊은 몽족 여인의 협상력에 그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편견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매겨야 할 금액과 고객과의 끈을 당기고 밀 때를 정확히 알았다. 결국 그녀는 고객과의 가격 절충을 통해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지켰다. 가격 흥정을 하다가 협상을 내려놓고 가려고 할 때, 그녀도 마음의 혼란이 있었을 텐데, 상인의 감은 그 가격에 팔아서 남는 것이 없다는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 일행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일행은 그녀의 흥정 폭의 끝이 그 가격이라 판단했고, 마침내



구매를 결정하고 돈을 건네고 난 뒤에야 그녀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받은 돈으로 전시된 물건들 위를 골고루 톡톡 스치며 축복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을 상대하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을 것이고, 자신이 지켜야 할 이익과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친절한 미소와 상냥함 그리고 합리적인 계산이 노변의 야시장 상인에 게도 있는데, 우리 단양의 상인들은 지금 가난한 라오스의 핍박 받는 젊은 몽족 상인의 친절함과 상냥함, 손님을 대하는 지극한 태도와 자신이 지켜야 할 이익을 협상을 통해서 지켜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양군은 연간 1,000만 명의 내방객이 단양을 찾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약 27,400이 다녀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650만 명이라고 주장 할 때부터, 이 말의 근거가 미약함을 들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다.

650만 명이라고 해도 하루 약 17,000명이 단양을 방문해야 한다.

이쯤 되면 상인들은 좀 허탈해진다. 하루 5,000명만 와도 단양의 상가와 숙박업소 택시와 버스는 사업이 되고, 시장은 활기가 넘쳐야 할 것인데, 왜 시장이 텅텅 비고, 숙박시설은 만실이 안 되고, 음식점에는 손님이 없고, 택시는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내방객 숫자에 허수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단양은 대한민국의 내륙관광지 중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동남아시아 내륙의 가운데 있는 가난한 나라 라오스, 그 라오스에서 도 차별받았던 몽족의 여린 상인도 자신이 가진 서비스와 친절 가치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팔 줄 아는데, 우리는 어떤 강점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하는 지 준비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의 시장 그리고 단양의 구경시장

라오스의 시장 몇 군데를 가 보았다. 비엔티안의 현대적 건물 속에 있는 상가는 주로 화상(華商)들이 상권을 잡고 있다고 했다.

명품 비슷한 가짜도 많이 있었지만, 물건은 별로 손에 잡히질 않았고 흥미도 없었다. 왜일까? 가격은 저렴했으나 제품의 품질은 별로였고, 거기서 사느니 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질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 몬도가네 시장은 옛날엔 별별 해외한 것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혐오스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시장 자체가 엽기적이란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썰어 놓은 고기나 생선 위에 파리들이 붙어 있어 아주 불결해 보였다. 이런 시장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마음에 느끼는 바는 없었다.

시장은 물물이 교환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람을 끌어 모으는 역할인 이벤트는 시장의 부가적인 요소이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통시장 내지 구경시장을 살리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마치 그것이 시장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치부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양시장의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먼저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것이 농산물이든 음식이든 전통가구는 잡화든 지역특산물이든 가격대비 품질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가격과 품질, 다양성과 편의성의

요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모객 가능한 행사를 통해서 시장 매력도를 높여가야만 승산이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조직이 창발적인 생각들을 수용하고 서비스와 품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구체적 방안은 시장상인들의 협동조합이든, 상인조직이든 관계없이

상인이 중심이 되서 주체적으로 시장을 살릴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과 시장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컨설팅 그룹은, 그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원해주고, 시장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모객 행사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과업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단양군 내의 적극적인 시장 소비자층이 소비자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결국은 그 시장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고 집중해서, 감성적인 구매가 아닌, 실질적인 구매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민(생산자+유통(시장)+소비자)관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라오스 시장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배웠다.

체험, 모험, 송강의 카약킹

보통의 여행에서는 탐낭동굴에서 나와서 바로 카약킹을 하며 반나절을 보낸다고 알고 있어 기대에 부풀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일정이 변경되었다. 안내인은 처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차로 꽤 오랜 시간을 거꾸로 호텔(시내) 방향으로 내려와 겨우 40여분의 카약킹을 끝으로 송강에서의 추억은 끝이 났다.

그러나 카약을 타고 물살을 가르며 송강을 내달리는 재미는 참으로 특별하고 묘했다. 여럿이 함께 타고 급류를 내려오는 레프팅도 좋지만, 카약은 그 속도나 노를 저으면서 자기가 이끄는 방식으로 강물을 탄다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우리 단양에서도 남한강을 활용한 다양한 튜빙, 카약킹, 레프팅 등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우리네 인건비가 저들의 인건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카약처럼 두어 명을 태우면서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패러글라이딩 10여분을 타면서 7-10만원을 주고도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요시간 대별로 가격을 정해서, 1인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으로 가격을 정하면 될 것도 같은 생각은 드는데...

물론 뚝강의 1시간 30분 카약킹은 우리 돈 3만 원 정도니까 차이는 나지만, 우리정도의 강물의 흐름으로 미루어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한다. 남한강 줄기의 아름다움과 맑은 물은 뚝강이 가지지 못한 우리의 장점이다.

깊이도 모를 싹누런 황토물 위를 내달리는 것과 푸르고 맑은 강물의 속살을 보며 물과 배와 몸이 하나로 되어 물살을 가르며 내달리는 기분은 최고일 것 같다.

V. 연수 후기

우리 일행은 아쉽게도 라오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볼 기회는 없었지만, 라오스는 문화적 자부심이 가득한 나라처럼 보였다.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낮아도, 라오스가 그저 몽매하고 무지한 나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독립을 쟁취할 열정과 힘을 가졌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힘을 가진 나라다.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수도는 점점 활기를 띄고 있으니 말이다.

라오스와 단양은 닮아 있다. 석회지역이라는 점이 닮아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닮아 있다. 라오스가 선진제국의 실패를 거울삼아 자신만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처럼, 단양도 우리가 가진 장점과 타 지방의 실패를 거울삼아 단양의 생태자연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라오스도 단양도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새로운 방식으로 용기있게 응전해야 한다.



<라오스의 아이들>

<참고>

몽족 학교 방문

- (방문일시) 2014. 11. 11.(화) 11:00
- (방문학교) 몽족 마을 <꺄이 뻗 초등학교>
- (방문취지)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교육 지원이 더욱 열악한 몽족의 학교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 보았다.
- (물품전달) 라오스에서는 제조 생산되는 자국 제품이 없어 모든 물품들을 인근 국가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학용품을 포함하여 모든 제품들이 비싸 아이들에게 공책과 연필 등을 지원하였다. 먼 길을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 아이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으러 집에 갔다 온다고 하여 빵과 우유를 제공하였다.



- (교육제도)
 - 학제는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헌법에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취학률은 전국 평균 71%, 중등과정 취학률은 전기 3년 39%, 후기 3년 19%에 그치고 있다.
 - 라오스 유일의 국립대학교가 한 곳 있으며 대학 취학률은 2%대, 성인 문자 해독률은 전국 평균 73%이다.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 (방문일시) 2014. 11. 13.(목) 15:00
- (면 담 자)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 김수권
- (환 답) 김수권대사는 바쁜 와중에도 작은 도시에서 온 우리 연수단을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 주시고 현지에서 보고 느낀 라오스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 (한국과의 외교관계) 1974년 6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75년 7월 라오스 공산화 직전 외교 관계 중단, 1995년 10월 외교관계를 재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대사님 주요 말씀)
 - (한국의 협력) 농촌개발, 메콩강변 관리 등 사업의 원활한 이행 및 신규사업 발굴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생의 발전 사례들로 양국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 (코라오) 한국인이 세운 코라오(KORAO)라는 회사가 자동차 조립, 판매사업을 벌여 국내 2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라오스의 경제 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이다.

